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 기간: 2025.7.4(금) ~ 2025.7.10(목)

제공일시 2025 7 18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컨설팅센터

문의 02 398 6432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 기간: 2025.7.4(금) ~ 2025.7.10(목)

제공일시 2025 7 18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컨설팅센터 문의 02 398 6432

글로벌 정책

1. 美, '영원한 화학물질' PFAS 규제 뒤집기... 반도체 업계 '안도'

- 미국 상원이 1일(현지시간) 미국 내 반도체 공장 건설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기존 25%에서 35%로 확대하는 내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자연적으로 생분해가 어려운 과불화화합물(PFAS) 규제를 완화함
- 반도체 제조에 필수로 사용되는 화학물질인 만큼 규제 대응이 시급했던 반도체 업계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PFAS 없는 대체재를 개발하는데 비상이 걸렸던 소재 업계는 대응 시간을 벌게 됨
- 6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지난해 4월 바이든 행정부가 제정한 PFAS 음용수 규제안에 대해 최근 재검토에 들어감
- 내년 봄 수정안을 확정할 계획인데, PFAS 제한 범위를 축소하고 규제 시행 시기를 늦추는 게 골자임

[\(전자신문 2025.7.6\)](#)

2. '핵심광물 무기화' 中, 전세계 광산 매입 속도

- 중국이 희토류 등 전략 광물 확보 및 주도권 강화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전 세계 광산 매입에도 속도를 내고 있음
- 6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S&P와 머저마켓 데이터 분석 결과, 지난해 중국의 해외 광산 인수 총 1억달러(약 1300억원) 이상 대형 거래가 10건 성사됐음. 호주 그리피스 아시아연구소의 별도 조사에서도 지난해 중국의 해외 광산 투자와 건설이 2013년 이래 가장 활발했음
- 세계 최대 광물 소비국인 중국은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원자재에 대한 탈중국 움직임이 거세지자, 선제적으로 자원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음. 중국의 적극적인 광산 인수는 첨단 제조업으로의 산업 전환과도 맞물려 있음

[\(서울경제 2025.7.6\)](#)

3. EU, '네이처 크레딧' 시장 도입... 생물다양성에 연간 104조원 투자 유치

- 유럽집행위원회(EC)가 생물다양성 복원을 위한 민간 투자 확대 방안으로 '네이처 크레딧(nature credits)'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고 8일(현지시간) 밝혔
- EU는 생태계 보호 활동에 민간 자금을 연계하고, 탄소시장을 넘어 자연자본까지 투자 범위를 확대할 방침임
- 국방비 등 공공 예산 지출 증가로 생물다양성 보호에 필요한 재원이 연간 약 370억 유로(약 59조4500억원) 부족한 상황에서, EC는 네이처 크레딧 제도를 활용해 연 650억 유로(약 104조5000억원) 규모의 민간 투자를 유치할 계획임

[\(임팩트온 2025.7.8\)](#)

국내 정책

1. AI 분야에 1793억원 추가 투입… 과기정통부 'AI 대전환' 속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국회 본회의에서 총 1793억원 규모의 인공지능(AI) 분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의결됐다고 5일 밝힘
- 공공·의료·제조 분야에 AI를 접목하는 'AI 대전환' 본격 추진을 위해 총 656억원을 투입해, △공공부문에 AI 접목을 위한 '공공AX 프로젝트(150억원)' △AI 기반 의료 예후관리서비스 개발(40억원) △제조업의 기술 고도화를 위한 AX 실증 플랫폼 구축(40억원) △피지컬 AI 핵심기술 개념검증(PoC) 등을 지원함
- AI의 산업화 및 사업화 확대를 위한 투자도 강화함
- 500억원 규모의 AI 혁신펀드를 추가로 조성함. 민간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고, AI 분야 초기 창업기업을 비롯한 유망기업의 육성에 박차를 가함

[\(천지일보 2025.7.5\)](#)

2. 현대차 콕 집어 만난 기재부… '한국판 IRA' 논의

- 기획재정부가 현대자동차를 만나 '한국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격인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 여부를 논의한 것으로 확인됨. 기재부는 최근 서울 모처에서 현대자동차와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 검토를 위한 비공개 간담회를 가짐
- 국내생산촉진세제는 기존 투자세액공제와 별도로 국내에서 전략산업 등 제품을 최종 생산·판매한 기업에 대해 생산·판매량과 비례해 법인세를 공제해주는 제도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임
- 기재부가 현대차를 콕 집어 부른 것은 전기차 등에 대한 생산촉진세제 도입 시 대표적 수혜 업체가 되는 만큼 미래차를 둘러싼 글로벌 업계 현황, 후속 투자 대책 등을 청취하기 위한 의도로 읽힘

[\(이투데이 2025.7.3\)](#)

3. 중복 상장시 모회사 주주 보상… 거래소, 가이드라인 만든다

- 국내 증시의 신규 상장 심사를 전담하는 한국거래소가 '중복 상장'에 대한 심사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상장 업무를 전담하는 업계에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함
- 그동안 중복 상장의 개념·유형·허용 여부를 두고 시장 내 혼선이 있어온 만큼 명확한 기준을 밝혀 시장 참여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임
- 중복 상장 기업의 모회사 주주에게 공모주를 일부 배당하는 등 주주 보상을 강화하는 '모범 사례'를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방안이 유력함
- 6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거래소는 최근 중복 상장 가이드라인 준비를 목표로 업계 의견 수렴 작업에 들어섬

[\(서울경제 2025.7.6\)](#)

글로벌 기업

1. 일본제철, 美 조강 2배 증산 선언... 포항 철강산업 '긴장'

- 일본제철이 향후 3~5년 내 미국 내 조강 생산을 두 배로 확대하겠다고 밝히면서 한국 철강업계에 중장기적인 충격이 예고되고 있음. 수출 의존도가 높은 포항을 비롯한 주요 생산거점은 시장 위축과 가격 하락 압력에 직면할 수 있다는 지적임
- 미국, 인도, 유럽 등 주요 수요국에 현지 생산기지를 확장하는 일본제철의 전략이 본격화될 경우, 한국산 철강재의 수출 비중 축소가 불가피할 것이라 분석도 나옴

[\(대경일보 2025.7.9\)](#)

2. 中 공급망 탈피 시도... 加, 북미산 광물로 LFP 생산

- 캐나다 기업이 북미산 원자재만을 사용해 원통형 배터리 제조에 성공하면서, 중국이 주도하던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핵심 광물 공급망 독립에 시동을 걸었음
- 캐나다 광물 개발 회사인 퍼스트포스페이트는 7일(현지시간) 북미산 핵심 광물만을 사용해 18650 원통형 LFP 배터리 셀 생산을 시작했다고 발표함
- LFP 배터리 양극 소재로 사용되는 인산염과 철은 캐나다 퀘벡주 공장에서 조달함

[\(전자신문 2025.7.8\)](#)

3. 폭스콘, 전기차 공략 가속... 日닛산 공장서 생산 추진

- 경영난에 빠진 일본 완성차업체 닛산이 대만 폭스콘의 전기차 생산을 검토 중임
- 7일 완성차 업계에 따르면, 닛산은 60년 넘게 운영한 도쿄 인근 가나가와현 오파마 공장에서 대만 폭스콘의 전기차를 대신 생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대만 폭스콘이 전기차 생산 기지로 일본을 선택한 건 안정적인 생산 능력을 갖췄기 때문임

[\(중앙일보 2025.7.7\)](#)

4. 호주 산토스, UAE 애드녹과 매각 협상 본격화... SK이노 예의주시

- 호주 에너지 기업 '산토스'가 아부다비석유공사(ADNOC·애드녹) 주도의 컨소시엄과 매각 협상에 나섬. 독점 실사를 허가하고 세부 조건을 논의할 계획임
- 다만, 매각이 성사되더라도 SK E&S와 추진 중인 호주 바로사 가스전 사업 계획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여짐

[\(더구루 2025.7.5\)](#)

국내 기업

1. LS일렉트릭, 美 신재생발전소에 1382억 규모 초고압변압기 공급

- LS일렉트릭이 미국 시장에서 대규모 초고압 변압기 사업을 수주하며 현지 사업 확대에 나섬
- LS일렉트릭은 미국 현지 법인 LS일렉트릭 아메리카와 ‘신재생 에너지 발전사업 프로젝트’를 위한 1382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힘
- 이번 계약으로 LS일렉트릭은 미국 서부의 여러 주에 위치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에 초고압변압기를 공급함
- LS일렉트릭은 2027년부터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초고압변압기를 납품할 계획임

[\(서울경제 2025.7.8\)](#)

2. 현대엔지니어링, 우드사이드 에너지·현대글로벌비스와 ‘LNG 액화 사업 개발’ MOU 체결

- 현대엔지니어링은 호주 우드사이드 에너지(Woodside Energy), 현대글로벌비스와 ‘LNG 액화 사업 개발’을 위한 3자간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9일 밝힘
- 이번 MOU를 통해 세 회사는 LNG 사업 수행역량을 강화하고, 글로벌 LNG 시장에서의 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데 주력한다는 계획임

[\(더퍼스트미디어 2025.7.9\)](#)

3. 삼성중공업, 아프리카 해양설비 예비작업 계약... 8694억원 규모

- 삼성중공업이 아프리카 지역 선주와 해양생산설비 본 계약 체결에 앞서 예비 작업(Preliminary work) 수행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공시함
- 이번 계약 규모는 약 8694억원으로, 이는 삼성중공업의 지난해 매출액 대비 약 8.8%(9조9031억원)에 해당하는 수치임. 회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해양생산설비 분야에서의 기술력과 수행 역량을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고 평가함

[\(이코노미스트 2025.7.7\)](#)

4. 세방리튬배터리, 미국·유럽 공장 추진... “中 대안 찾는’ 美 시장 기회”

- 세방전지의 자회사 세방리튬배터리가 미국과 유럽에 생산시설 건설을 추진함. 현대자동차그룹의 협력사로 리튬배터리 모듈 시장에서 입지를 다지며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음
- 싱가포르 경제매체 월드폴리오에 따르면, 오홍섭 세방리튬배터리 대표는 지난 7일(현지시간) 인터뷰에서, 미국·유럽 진출 계획에 대해 “향후 2~3년 안에 신공장을 가동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함

[\(더구루 2025.7.8\)](#)

Weekend ESG Insight

이슈 검색 기간: 2025.7.4(금) ~ 2025.7.10(목)

제공일시 2025 7 18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컨설팅센터

문의 02 398 6432

美 의회, EV 세액공제 9월 말 종료 확정... 연비 규제도 완화

- 미국 의회가 대규모 세제 감축 및 지출 삭감 법안을 최종 통과시키면서, 전기차(EV) 구매 시 제공되던 연방 세액공제가 오는 9월 30일부로 전면 폐지된

- 로이터통신은 4일(현지시각) 상·하원이 해당 법안을 찬성 218표, 반대 214표로 통과시켰으며, 이번 조치로 바이든 행정부의 대표 친환경 정책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핵심 조항이 사실상 무력화됐다고 보도했음. 해당 법안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7월 4일 시한을 앞두고 처리됐음

- 전기차 세액공제는 2008년 도입된 이후 미국 내 EV 보급 확대를 위한 핵심 인센티브 제도였음. 2022년부터는 리스 차량까지 적용 범위가 확대됐고, 제조사별 한도도 폐지되면서 EV 시장의 성장 동력으로 평가받았음

- IRA 시행 이후에는 배터리 공급망 구축과 국내 생산 확대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음. 현재 소비자는 신차 구매 시 최대 7500달러(약 1065만원), 중고차는 4000달러(약 570만원)를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음. 당초 이 혜택은 2032년까지 유지될 예정이었지만, 이번 법안 통과로 오는 9월 말 종료됨

- 이 외에도 50억달러(약 7조1000억원) 규모의 충전소 구축 계획도 동결됐으며, 제조사가 '기업 평균 연비(CAFE)'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벌금을 내야 하는 조항도 폐지됐음

- EV 인센티브 폐지뿐 아니라 연비 규제 제도마저 완화되면서, 전기차 확산을 견인해 온 '당근과 채찍' 정책이 동시에 약화됐다는 지적도 나왔음

- 영국 바클레이즈(Barclays) 자동차 담당 애널리스트 댄 레비는 "이번 법안은 EV 확산 속도의 둔화를 예고하는 조치로, 인센티브와 규제가 함께 사라지며 시장의 전반적인 성장 동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말했음

- 한편, 보조금 폐지로 인해 미국의 EV 보급 속도가 급격히 둔화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음

- 블룸버그통신은 EV 세액공제 폐지 확정 이후 "전기차 보급률은 2030년까지 48%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으나, 이번 세제 개편으로 27%까지 하락할 것"이라며, "전기차에 대한 관심은 유지되고 있지만, 정책 변화는 실제 구매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음

- 블룸버그NEF는 "이러한 정책 변화가 모두 반영될 경우, 미국의 EV 비중은 2030년 27%로 후퇴해 세계 주요 전기차 시장 3위권 밖으로 밀려날 것"이라고 전망했음. 이는 지난해 48% 전망치에서 크게 하향된 수치며, EV 보급은 약 2년간량 지연될 것으로 분석됐음

- 전미자동차딜러협회(NADA)는 법안 통과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현재 미국 내 약 14만 대의 전기차가 재고로 남아 있다"며, "보조금 종료는 판매 차질로 직결될 것"이라고 경고했음

- 이번 법안에는 태양광·풍력 발전에 대한 30% 연방 세액공제를 2026년부터 60%로 줄이고, 2028년부터 완전히

중요하는 내용도 포함됐음. 반면 수력, 원자력, 지열 발전에는 2033년까지 전액 세액공제를 유지한 뒤, 2036년까지 점진적으로 단계 축소하는 방식으로 차등 적용됨

- 민간 싱크탱크 에너지이노베이션(Energy Innovation)은 이번 조치로 미국 전력 설비 용량이 최대 300기가와트(GW)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전망했음

[\(임팩트온 2025.7.5\)](#)